



후끈 달아올랐던 2006년 독일 월드컵 시즌이 이제 이달 10일이면 결승전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비록 16강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승리에 대한 염원이 가득했던 6월이었다. 이제 그토록 뜨겁게 타올랐던 월드컵의 열기는 고스란히 여름의 뭉이 된다. 7월, 작열하는 태양의 계절이 돌아왔다. 녹아내릴 듯 뜨거운 날씨는 자꾸 에어컨이 있는 실내와 그늘로 내몰지만, 그렇다고 더위에 지레 겁먹고 물러설 필요는 없다. 여름은 상반기 내내 지치게 했던 일상을 접고 훌훌 떠나기 좋은 계절 아닌가. 태양과 더위에 맞서서 이 계절을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글 임영모 객원기자

여행의 동반자, 모바일 길안내 서비스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운전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길눈'이라고 말한다. 아무리 운전을 잘 한다 해도 길을 모른다면 말짱 헛일이다. 낯선 곳을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걱정이 앞서고, 자꾸 지도를 펼쳐보면서 불안해진다. 운전이라는 것이 '길 위를 달려서 목적지에 이르러' 행위이기 때문에 길에 대해 아는 것은 운전의 시작이자 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운전을 분담해서 할 수는 없지만 길에 대해 해박한 친구가 동행하면 여행이 편한 경우가 있다. 조수석에 앉아서 길을 안내해주고 지도를 펼쳐 길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된다. 물론, 그러면서 맛있는 곳은 어디인지, 놓치지 말아야 할 관광지는 어디인지, 길

이 막힐 때 어떤 길로 돌아가면 편한지를 알려주는 친구라면 정말 금상첨화다.

나는 더 이상 길치가 아니다

이런 친구마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음치만큼이나 자신이 길치인 것에 대해 부끄럽고 자신 없어 하던 사람들을 위해서 길눈을 대신 해주고 여행동무가 되어주는 도구가 생겼다. 카네비게이션 시스템(Car Navigation System)이라고 일컫는 도구로, 현재 위치에 대한 정보와 주변 시설물들의 정보는 물론 목적지까지의 길안내 서비스도 제공해주는 운전 도우미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그 기계와 이야기를 나누면서('200미터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네, 고마워요.' '1km 앞에서 안전한

행 하십시오.' '과속하는 걸 어떻게 알았어?' 등의 이야기를 다정스럽게 나누면서) 정말 친구처럼 지내기도 한다는 바로 그 도구다.

요즘 들어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갖춘 카네비게이션 시스템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모양과 기능, 사용방식과 제공 서비스가 다소 다르긴 하지만, 이들을 이루는 기본적인 틀은 거의 비슷하다.

● GPS

우선 사용자 차량의 현재 위치를 알기 위해서 위치 파악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장치들이 사용자 위치 파악을 위해서 GPS 방식을 사용한다. GPS는 'Global Positioning System'의 약어로 위성항법장치라는 용어보다는 그

냥 GPS라는 말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현재 위치를 GPS 전용 인공위성을 통해 위도와 경도, 시각 정보 등의 데이터를 제공받게 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위성을 정보 취득 수단으로 하다보니 위성을 볼 수 없는 지하 공간이나 터널 안, 대도시 빌딩 밀집 지역에서는 제대로 위치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오류가 나기도 하지만 가장 범용적인 위치 파악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위성 신호를 감지하기 위해서는 고감도의 GPS용 안테나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위치 파악을 시도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에 대해서도 감안해 둘 필요가 있다.

● GIS

GPS가 인식한 위치 정보는 위도·경도·고도·시각·속도 등에 대해 수치로 표현되는 게 전부다. 기계들만 알아볼 수 있는 코드로 전달된 정보는 해독 작업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가공된다. 우리에게 편리하고 필요한 것은 위도 37.30도, 경도 127.1도와 같은 수치 정보가 아니라,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신사역 사거리와 같은 명칭 정보다. 이를 위해서 GIS(지리정보시스템,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라는 분야가 별도로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위성 수신 좌표와 단말기 내 데이터 간의 관계 설정을 위해 필요한 솔루션이라 할 수 있다.

● 전자지도 데이터

현재 위치를 파악하던 이동 경로를 파악하던 간에 운전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지도다. 네비게이션 시스템에서 지도의 역할은 서비스의 시각적인 측면과 관여되어 있어 상당히 중요하다. 이 전자지도에는 지형 정보, 도로 정보, 행정구역 정보 등이 들어간다. 주로 네비게이션 시스템의 메모리 형태로 장착되며, 당연한 말이지만 지도의 정밀도에 따라 용량이 다르다. 지도는 현실 데이터를 반영하고 있으며 반영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현실 데이터라 할 수 있는 도로의 신설·변경·폐쇄 등이 발생하였을 때, 지도 역시 이를 반영하여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해주어야만 한다. 카 네비게이션 시스템 공급업체에서는 지속적으로

로 전자지도 데이터 업데이트를 해야 하고, 사용자들은 이를 다운로드받아 항상 최신 정보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 관심지점 정보

전자지도 데이터에서 다루는 지형 정보, 도로 정보, 행정구역 정보 이외에도 지점에 대한 정보가 별도로 필요하다. 이것을 일컬어 POI(관심지점, Point of Interest)라고 한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목적지를 찾을 때 '서울시 중구 다동 10번지'와 같은 행정구역의 지번을 이용하기보다는 '한국관광공사빌딩'과 같은 목적물의 이름을 검색하게 된다. 이러한 부분은 일반적인 정보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정보일 수도 있고, 상업적인 정보일 수도 있어서 여러 목적의 데이터베이스로 나뉘게 된다. 물론 이 정보는 전자지도 데이터에 함께 내장되며, 이 역시 지속적인 변화에 따른 업데이트를 감수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다.

● 디스플레이 및 사용자 네비게이션 패널

위치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찾은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디스플레이 장치가 필요하고 사용자의 조작 도구가 필요하다. 주로 차량의 구조상 액정화면 형태로 제공되며, 사용자 조작을 위해서는 터치스크린 방식 혹은 별도의 입력 장치를 갖추기도 한다. 사용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휴대전화와 같은 휴대용 네비게이션의 액정은 운전 중에 운전자가 상황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으며, 액정의 해상도, 밝기 등도 제품마다 각각 다르다.

다행스럽게도 여행 길동무로 사귄 수 있는 친구들의 종류는 무수히 많다. 너무 많아서 고르기 어려울 수 있다는 반대급부 빼고는 소비자 입장에서 행복한 환경이다. 아무리 인간성 좋은 친구라 해도 본인과 성격이 맞아야만 친구가 될 수 있는 법. 이번 기회에 길눈 밝은 친구를 사귀고자 한다면 다음의 사항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보자.

구입비와 함께 유지비를 고려한다

네비게이션을 구매할 때 어느 정도의 목돈

지출을 감수해야 하므로, 비용 부분은 기기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지도 디스플레이 없이 단순히 GPS 기능만 갖춘, 길을 안내하기보다는 무인속도측정 카메라 위치 정도의 정보를 알려주는 용도의 단말기에 서부터 시작, PDA에 전자지도와 GPS 수신기를 연결한 시스템, 순수 네비게이션만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전용 단말기, 휴대전화 기능과 접목된 네비게이션 서비스, 최근 유행하는 PMP 기반 네비게이션 등 다양한 단말기가 출시되어 있다. 기능에 따라 비용 지출의 폭이 심하므로 뒤에 언급할 기능 부분을 고려하여 알맞은 기기를 선택한다.

여기서 하나 더 유의해야 할 사항이 '유지비' 측면이다. 길안내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인 전자지도는 주기적으로 새로 업데이트를 해주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제공업체 입장에서 자료 구축에 따른 비용 부담이 있어서 유료 서비스화 되는 경향도 있으니 체크해야 한다. 서버와의 통신을 통해 그때마다 최신 지도를 다운로드받는 휴대전화형 네비게이션의 경우에는, 항상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데이터 전송에 따른 패킷 이용료 등을 간과할 경우에 엄청난 요금이 청구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반면, 이동통신사에서는 이를 위해 정액요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한다면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

뭐니뭐니해도 길안내를 잘해야 한다

네비게이션 단말기는 길안내 기능이 주된 목적이지만, 사용자의 다양한 기호를 반영하여 여러 가지 복합 기능 형태의 단말기들이 출시되고 있다. 아무리 기능이 많다고 해도 네비게이션 단말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능은 길 찾기가 얼마나 편리하고 정확한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이 부분은 전자지도의 정확성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목적지까지 가장 빠르고 가까운 길을 계산하는 GIS 분야의 라우팅(Routing) 부분과도 관련이 있다. 교차로와 진입로에 대한 정보도 상당히 중요하고, 지형 지물은 물론 해당 전자지도에서 다루고 있는 POI 데이터의 성격과 개수 역시 중요하다. 전

자지도의 종류가 공인된 것인지, 업데이트는 주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되는지, 데이터의 양은 필요한 만큼 충분하지 고려해 봐야 한다.

길안내를 요청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어떤 조작을 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선택 사항이다. 목적지를 입력할 때에, 행정구역의 지번을 이용할 수도 있고, 지역 시설물 명칭 위주로 선택할 수도 있다. 최근 검색 경향을 보면 목적지의 전화번호를 이용하기도 하고, 네비게이션 단말기와 함께 나온 코드 북의 숫자 코드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찾을 수도 있다.

휴대전화 네비게이션이나 자동차 텔레매틱스 서비스처럼 실시간 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서비스에서는, 고정적이고 획일화된 길안내가 아니라 현재의 도로 여건과 경제 상황 파악 등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이동 경로를 알려주기도 한다. 물론 비용이 따르는 서비스긴 하지만, 길에서 소비하는 시간의 가치가 소비 비용보다 큰 사용자라면 실시간 교통 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길안내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다.

당연히 보기 편해야 한다

예전에는 2D 기반의 지도 일색이었지만, 이제는 2.5D 기반이 상당히 많이 애용된다. 업체에서는 3D 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직은 2D 맵에서 높이 정보의 입체감을 살린 수준의 2.5D 맵이라 할 수 있다. 실제 공간을 반영한 3D 공간정보 데이터는 몇몇 지자체를 중심으로 구축을 시도하고 있으나, 구축하는데 있어 비용 측면이나 구축 기간 및 범위 등의 측면에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상태다.

이 차이는 평면적인 일반 지도책을 보고 운전하는 것과, 약간 저급 수준의 자동차 게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의 차이와 비슷하며, 그 정도의 차이만으로도 쉽게 원근감과 이동 목적지 인식에 도움이 된다.

여기에 상황 정보를 사용자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표현하는 단말기가 좋다. 교차로 정보나 고가도로 진입, 나들목진·출입 등에 있어서 차선 정보도 중요하며, U턴, P턴과 같은 회전 정보에 대한 정확할 알림 기능도 필요하다.

네비게이션 단말기는 운전자를 고려하여 시각적 정보뿐만 아니라 청각적인 정보도 제공한다. 안내 음성 메시지의 종류가 제품의 선택을 좌우하는 변별적 자질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는 운전을 피곤하게 할 수도 있다. 제품 중에는 다양한 목소리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어, 항상 똑같은 비서 버전의 멘트를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야, 100미터 앞에서 우측 2시 방향이야”라고 안내해주는 애교버전, “거시기 100미터 앞에서 우측 2시 방향입니다요”라고 안내하는 형님 사투리버전, “애야, 100미터 앞에서 우측 2시 방향이란다. 우측 차선을 이용하거라”라고 따뜻한 목소리로 조언해주는 부모님 버전을 이용할 수도 있다.

디스플레이의 크기도 선택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다. 예전에는 3.5인치 제품이, 요즘 들어서는 7인치 제품이 많이 나오는 추세이며, 그 밖의 크기 제품군도 다양하다. 7인치 제품은 네비게이션 기능에 DMB나 PMP 기능이 결합되면서 최근 출시된 제품으로, 화면이나 조작 패널 등이 널찍해서 시청이나 인지하기에 쉽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우선 구매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며 시야를 방해하거나 차량 내부를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는 단점도 있다. 3.5인치 제품만으로도 충분히 상황을 판단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 추세는 와이드 방식의 액정 화면이 네비게이션에 반영되는 추세다. 길안내를 하다가 좌회전이나 우회전 등 회전 정보가 나올 경우 주로 차선 안내를 위한 별도의 창이 화면 좌측이나 우측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와이드 방식의 화면이 인지하기 편리한 편이다. 또한, 운전자의 시야를 적게 가리고, 영화 콘텐츠를 즐겁게 있어서도 16:9 와이드 콘텐츠가 많아지면서 보급이 확산되고 있다.

본인이 꼭 필요로 하는 기능을 찾아라

위낙 많은 기능을 담다보니 본연의 네비게이션 기능보다는 오히려 다른 기능들에 사용자가 현혹되어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 늘 이런

경우를 파레토의 법칙에 비유한다면, 기능적인 측면에서 20% 수준인 네비게이션 기능이 이용될 면에서는 80%를 차지하는 수도 있을 정도로 너무 많은 기능이 내장되기도 한다.

DMB 기능 및 동영상 재생 기능 등은 많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사항이지만, 자칫하면 안전 운전에 방해되는 요주의 기능 중 하나다. 자동차 제조사에서 차량 설계시 포함시키는 텔레매틱스 단말기 BM(Before Market) 모델의 경우에는 주행 중 TV 시청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방식으로



화면의 디스플레이 방식은 편안한 운행과 직결된다. 주로 교차로에서는 보조화면을 통해 별도의 안내를 한다.(화면은 현대디지텍 K9 D plus 제품)



예전에는 길안내 중심이었으나, 최근 제품들은 DMB 및 멀티미디어 플레이 등 부가적인 기능들이 강화되는 추세다.(화면은 엑스로드 z3000 제품)

설계되어 안전 운행을 유도하지만, 사용자가 차량 구입 후 설치하는 AM(After Market) 상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물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운전 중에도 TV나 영화 파일 등의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을 선호하겠지만 잠시의 엔터테인먼트 향유보다는 생명이 소중한 두말 할 필요가 없다.

MP3 파일 듣기, 사진 보기 기능 등도 최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사항 중 하나다. 자동차 주유 및 정비 관련 기록을 할 수 있는 차계부를 지원하기도 하며, 일반 컴퓨터 문서 파일 뷰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간단한 게임 기능이 들어 있기도 하고, 후방감시카메라 기능을 갖춘 경우도 있다.

차량에 고정 부착되어 주로 네비게이션 용도로 사용되는 전용 단말기 이외에도 PDA용 네비게이션과 일반 휴대용 PMP에 네비게이션 기능을 더한 제품, 휴대전화에 네비게이션 기능을 추가한 제품 등이 나와 있다. 평소에는 몸에 지니고 다니다가 운전 시에만 네비게이션 목적으로 기능 전환을 할 수 있는 제품들로, 복합 기능을 갖춘 컨버전스 제품을 원한다

면 이러한 제품군에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

길동무가 되어 주는 친구들

이제 여름 여행을 준비하고 있고 길동무가 필요하다면 여행에 동행할 파트너를 고를 차례다. 많은 종류와 제품이 있으나 여기서는 크게 분류를 나누어서 네비게이션 전용 단말기와, PDA형 단말기, PMP형 단말기, 휴대전화형 단말기로 나누어 소개한다.

● 네비게이션 전용 단말기



네비게이션 전용 단말기 아이나비 UP+

이 제품군은 주로 차량에 고정 부착하여 네비게이션 전용으로 사용하는 단말기 형태를 말하지만,

지도 업데이트 등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 착탈식 형태로도 개선되어 출시되고 있다. 최근에는 지상파 DMB 기능을 기본으로 탑재된 제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주 기능인 네비게이션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 부가적인 기능들이 없던 형태를 띤다. 지도 및 각종 POI 정보의 업데이트는 메모리 카드 혹은 USB 포트를 통한 최신 파일 다운로드를 통해 진행된다. BM 모델의 텔레매틱스 단말기 경우에는 CDMA 망을 통해 업데이트하기도 한다(이 경우 데이터 전송에 따른 패킷 요금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 없는 큰 부분이므로,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라면 정액 요금제를 이용하는 편이 낫다.)

네비게이션 전용 단말기로 출시된 톱크웨어의 <아이나비 UP+>의 경우, 착탈식 방식을 지원하여 데이터 업데이트 시 제품을 떼어서 PC의 USB 포트와 연결하여 자료 치환을 할 수 있으며, 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기능까지 선보이면서 영역을 PMP 단말기 쪽까지 넓혀가고 있기도 하다. 윈도 CE.NET 4.2 운영체제에, ARM9 400MHz의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터치스크린 방식과 320×240 QVGA TFT LCD 화면, 512MB 및 1GB의 메모리, SiRF III GPS 칩셋을 채택하고 단말기에 부착된 GPS 안테나를 사용하고

있다. 제품은 40만원대 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지도는 톱크웨어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업데이트가 이루어진다.

● PDA형 단말기



PDA HP iPAQ hx2190을 이용한 네비게이션 패키지

PDA형의 장점은 평소에는 휴대성이 뛰어난 PDA의 기본 고유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차량 안에서

는 차량 거치형 네비게이션 단말기로 탈바꿈된다는 점이다. PDA의 속성상 개인정보 관리가 뛰어나고, 제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IrDA 및 블루투스 기능을 통한 근거리 무선 통신 기능과 CDMA 및 네스팟 망을 이용한 이동 통신 기능까지도 겸비하고 있고, 핸드헬드 PC 콘셉트로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컴퓨터 및 통신 환경 애호가에게 어울리는 단말기라 할 수 있다.

주로 일반 PDA 혹은 PDA폰을 구매하고, 이에 덧붙여 옵션 형태로 네비게이션 관련 액세서리 및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환경을 갖추게 되며, 네비게이션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용자를 위해서 각 사에서는 패키지 상품을 구성하여 판매하고 있다.

제품의 형태는 네비게이션 기능 지원 PDA와 지도 데이터 소프트웨어와 GPS수신기 종류에 따라 각 조합에 의해 다양한 상품군이 만들어진다. 주로 지도 데이터 및 네비게이션 솔루션은 CF 메모리 형태로 PDA에 삽입하여 사용하며, GPS 안테나는 GPS 일체형 거치대 혹은 별도 안테나를 통한 선 연결, 블루투스 방식의 무선 안테나 등으로 설치되는 등 그 형태도 다양하다.

<HP iPAQ hx2190>의 경우, 기본적인 PDA 성능 면에서 윈도 모바일 5.0 포켓 PC 버전이 운영체제로 탑재되며, 각종 포켓 PC용 오피스 프로그램과 멀티미디어, 인터넷 관련 소프트웨어가 제공되고, 인텔 PXA270 312MHz 프로세서로 구동된다. 블루투스 통

신 기능을 갖추고 있고, 터치스크린 방식 3.5인치 TFT LCD, 192MB의 메모리 등이 있으며 슬롯을 통한 메모리 확장이 가능하다. 패키지 형태로 제품을 구매한다면 대략 50만원대를 중심으로 10만원 내외에서 포진되어 있는 제품들을 선택할 수 있다. 데이터 업데이트는 지도 데이터 제공업체를 통해 공급되며 PC와 PDA의 통신 기능을 이용한다.

● PMP형 단말기



PMP (아이스테이션 V43)을 이용한 네비게이션 패키지

PMP 단말기에 네비게이션 기능을 보강한 것으로, 이 역시 PDA와 비슷하게 주 용도는 PMP이며, 네비게이션이 부가적인 용도로 옵션 사항처럼 추가된 형태를 띤다. PMP의 장점은 멀티미디어 파일 재생에 초점을 맞춘 단말기 구성과 간편한 사용자 조작 인터페이스, 20GB에서 30GB에 이르는 방대한 저장 공간, 손쉬운 파일 관리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 DMB 기능까지 포함되므로 멀티미디어를 즐기는 사용자라면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이러한 PMP에 GPS 기능 및 네비게이션 기능을 추가하여 차량용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제품이 별도로 패키지화되어 보급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상품으로는 주로 PMP에 네비게이션 기능 탑재가 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조합이 이루어진다. 가격대는 PMP 기본 가격에 네비게이션 키트 가격이 덧붙게 되는 선으로, 현재 디지털큐브의 <아이스테이션 V43 Navi Plus(20G)> 제품에 지상파 DMB 킷을 장착하고, 차량용 안테나와 크래들, 추가 배터리, 유선리모콘 등을 패키지로 판매하는 가격 선이 60만원 후반에서 70만원대에 이른다.

● **휴대전화형 단말기**

네비게이션 기능이 휴대전화 속에 자리 잡은 제품들도 여럿 출시되었다. 휴대전화를 중심으로 디지털 카메라, MP3, 오피스 문서 뷰어 기능 등 수많은 기능이 탑재되고 있으며, 네비게이션 기능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서 자체 내장되어 개인 휴대용 컨버전스 상품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휴대전화 네비게이션의 장점은 우선 작은 사이즈로 휴대가 쉽고 보행 중이거나 타인의 차량에 탑승했을 때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단점으로는 액정 사이즈가 작아 시각적으로 인지하기에 다소 불편하고, 맵 데이터를 데이터 통신을 통해 그때그때 다운로드 받게 된다는 것이다. 좀더 특징적인 부분을 들자면, 이동통신망의 셀ID 방식을 이용하여 위치를 파악할 수도 있어서 GPS 수신감도를 높이기 위한 GPS 안테나가 상대적으로 작으며, 최신 맵데이터를 필요한 경우마다 사용하게 되고, 현재의 교통상황을 반영하여 최적의 길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SK텔레콤과 KTF에서 이러한 네비게이션 전용 휴대전화를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위치 조회 및 데이터 수신 등이 필요한 단말기다 보니 조회 건별 요금제도 및 월정액 요금제 형태도 추가 과금이 따른다.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라면 월정액 요금과 데이터 패킷 이용 무제한 요금제를 함께 신청하여 사용하는 게 낫다.

SK텔레콤의 네이트드라이브 네비게이션 폰으로는 <SCH-850>, <PT-S120>, <LG-SV900> 폰이 출시되어 있으며, 별도의 GPS 안테나와 거치대가 필요한 콤팩트형 휴대전화로는 <SCH-V940> 이외 약 20여종의 단말기가 출시되어 있다. KTF의 케이웨이즈 네비게이션 폰으로는 <PT-K2100>, <EV-KD300>, <KTF-T3000>, <LG-KP4500>, <PT-K1800>, <PT-K14000>, <LG-KP4000>, <KTF-X9000>, <KTF-X8000>, <SPH-V6000>, <SPH-V6500>, <LG-



자체 네비게이션 기능을 갖추고 있는 KTF용 휴대 전화 제품 PT-K2100

KP3800) 등 다양한 제품이 나와 있다.

KTF 케이웨이즈의 요금제를 살펴보면, 프리보이스·프리·라이트·레이저·안전운행·종량제 등으로 사용자의 이용 성향에 따라 각각 다른 요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대 월 1만원에서 건당 과금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여행을 떠나자

집에서 비테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용변을 보지 못한다는 것처럼, 네비게이션 적용도가 높은 사람들은 네비게이션 없이는 다른 곳으로 이동을 못하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

로 네비게이션 시장은 확산되고 있다.

요즘 길거리의 자동차를 살펴보면 네비게이션 제품의 사용이 점차 대중화되어 가는 모습을 알 수 있다. 본 기사를 통해 소개된 제품 군들이 이제 하나들 사용자의 차량에 길동무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다. 제품들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기능이 분화되고 특색을 가질수록 소비자 입장에서 입맛에 맞는 선택이라는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 같다.

비록 '우회전하세요, 안전운행하세요.'만 말하는 답답한 친구일 수는 있지만, 옆에서 줄지 않고 길을 척척 알려주는 친구가 있다면 여행이 편하지 않을까. 이번 여름, 휴가를 떠나기 전에 한 번 여행 친구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

